**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3)**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은 주님의기도의 세 번째 구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날의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함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라 하셨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잊지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먹고 살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얻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가장들에게 이 가족들 먹여 살리는 일은 매우 고된 과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심각한 역전이 일어나곤 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돈이 유발하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마치 자기 생명이 거기에 속해 있는 듯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빵이 우리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과연 우리의 생명은 돈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눅12:22-23).

예수님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빵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이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어느 해 풍년이 들자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올커니, 곳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여러 해 쓸 양식을 많이 쌓아 두고,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지만 그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돈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약 4:13-14).

이처럼 빵보다 생명이 중요하고, 이 생명은 돈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돈이 엄청난 위력을 과시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빵보다도 못한 존재일지 모른다는 착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소유가 마치 내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주기라도 할 것처럼, 하나님 대신 열심히 돈을 섬깁니다.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와 가족이 위기에 처하는 것,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는 것, 너무 빨리 죽게되는 것 등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느끼고 체험하는 만큼,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3장 5-6절은 우리에게 인상적인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스라엘 온 땅에 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사르밧 지방의 한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물과 떡을 달라 요청하자 그녀가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걸로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만드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말에 사르밧 과부가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녀의 가족이 하루 하루 먹고 살 만큼의 가루와 기름이 그때 그때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함을 아시면서도 그러라 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늘 다시 기억하므로 우리가 매일 매일을 두려움이 아닌 사랑 안에서 빵이 아닌 생명에 초점을 맞추며 살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에는, **오늘을 감사히 누리며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이 기도는 ‘오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을 감사히 누리며 살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오늘 내가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오늘 먹고 살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며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어서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을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어바웃 타임>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팀은 성인이 되던 날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집안 남자들은 시간을 되돌릴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옷장 같은 데 들어가서 주먹 쥐고 눈 감고 지나간 어느 때를 상상하면 그 때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팀의 할아버지는 그 능력을 돈을 모으는데, 아버지는 남보다 많은 지식을 얻는데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

평소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그는 그 능력을 이용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는데 성공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삶에 문제가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팀은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면 예상치 못한 또다른 문제가 생겨나 그를 힘들게 합니다.

한편, 영화 말미에 팀은 아버지로부터 그 능력을 이용한 놀라운 행복의 비결을 듣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하루를 꼭 한번씩만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칠 때 지나간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놓쳐버린 소중한 것들이 무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 그 소중한 것을 다시금 충만히 누리며 하루를 삽니다. 그 소중한 것이란 사실 별거 아닙니다. 바쁘게 이동하느라 잠시 느낄 새도 없었던 푸른 하늘과 맑은 바람, 상사에게 꾸지람 듣고 있는 친구를 향한 짧은 눈웃음과 이어지는 둘만의 우정어린 교감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과거로 돌아가 하루를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행복의 비결을 내 것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그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붙잡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기도는 ‘한동안 걱정없이 먹고 살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 먹고 살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갖는 복이 아닙니다. 적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복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탐욕에서 해방되어 이 자족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는 여러분에게 구원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약1:15-17).

구원은 욕심-죄-사망으로 이어지는 멸망의 길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던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 결정적인 궤도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썩어질 것들에 대한 욕심과 습관에 이끌리던 삶에서 ‘건져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하나님의 선물에 이끌리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받아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구원 체험이 확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과감히 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고행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지만 바울 자신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삶은 새로운 행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줄기차게 구했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도, 그는 낙심치 않고 도리어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그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더 좋은 것에 구미가 당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4:11-13).

자족의 삶은 그저 나를 비우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나를 가득 채우는 삶입니다. 예수님 한분으로 충분하다 느끼는 사람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언제 사라질 지 모를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자족할 수 있습니다 (딤전6:17).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오직 그날 하루만을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매일 만나를 채취해오는 것이 귀찮아서 욕심부려 한번에 많이 거두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나를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남음도 부족함도 없게 각자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먹고 살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라 하십니다. 내일 생각 때문에 쓸데없는 욕심부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만나를 기다리고 또 주신 만큼 감사히 누리라 하십니다. 그날 그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단지 그 눈에 보이는 양식만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세심히 돌보시고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섭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주님의기도는, **받은 것을 서로 나누며 청지기적 삶을 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우리에게” 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로 오셔서 그들과 기꺼이 ‘우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그들을 위한 빵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며, 예수님은 단지 나를 위해서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즉 ‘우리’의 생존을 함께 생각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우리 아버지’의 양식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눅12:42-43).

온 땅과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를 맡아 잘 관리하며 그 집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좋은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어리석고 거짓된 매니저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려는 주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매니저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기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는 더 많은 소유를 맡겨 관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 즉 오직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청지기 의식이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는 그 물질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양식을 걱정합니다. 그는 그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한 최고의 투자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19절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초대교회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누었던 것은 빵과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 중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담대히, 그리고 아낌없이 다른 이들과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행3:6). 그러자 그가 곧 일어나 걸으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버스나 뜨람 정거장 앞에 서 있다 보면 다가와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난 주간에도 저는 그런 사람을 두 차례 만났습니다. 한명은 마약중독자처럼 보이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명은 차비를 보태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약중독자여서 아마 더 주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나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두 번째 만난 사람에게는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에게 돈을 받고나서 바로 이어 다른 사람에게 또 손을 벌리는 것을 보면서 역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한 것이 더 잘 한 일이라 생각되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좋을 지 몰라 곤혹스럽습니다.

저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 때론 주시기도 하고 때론 안 주시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각과 형편을 꿰뚫어보시기에, 그때 그때 적절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마약중독자에게 돈을 주는 것을 두고 그의 죄를 부추기는 일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주는 것이 그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내 마음이 편하자고 그냥 귀찮아 돈을 줘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보다 더 자비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좇고자 한다면,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안 주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를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다가온 사람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고자 할 때,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는 지금 돈을 원하고 있지만, 실상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그의 시급한 필요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한 능히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또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를 위한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의 실천은 말과 혀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요일3:18). 진실한 사랑의 마음은 나눔의 삶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5:41-42).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고자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전 한국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 그들은 월세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 유서 속에서, 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한없이 슬퍼집니다. 돈 때문에 미안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일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 주어진 오늘을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이 염려와 결핍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길 구하는 작지만 위대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매일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나와 내 이웃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합시다! 오늘을 감사히 누리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받은 것을 서로 나누며 “지혜 있고 진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눅12:32).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감사히 누리고 자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며,**

**이 염려와 결핍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길 구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